

# 美人론, 韓계엄령에 “한밤의 정치드라마…광범위한 파장”

### 정치 혼란 초래·과거 독재정권 기억 환기…많은 국민 분노 지지를 낮은 윤 대통령 직위 유지 불확실…정치적 몰락 가능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이른 오전

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간) 화요일 늦은 오후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야당에서 관련 소문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적이었지만 완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고도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박빙 선거 중 하나에서 승리했으나 곧바로 많은 스킨들(정당)을 휩쓸었다”면서 “불필요하게 보인 여러 (정부) 조치들과 함께 스킨들로 인해 그의 지지는 급락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폐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윤 대통령의 책략은 역효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드라마의 늦은 오후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보았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그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반대 대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런 반대는 열성적인 국회에서의 투표, 비판자 및 여당에서의 규탄 분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이른 오전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면서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日, 계엄 한일관계 여파 주시…“이시바 내달 방한 변경 가능”

### 개선 흐름 양국 관계 영향 수교 60년 행사에 ‘찬물격’ 尹, 사태 타개 노린 강경책 ‘강권정치 시대’로의 퇴보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사실을 실시간 속보로 전달하면서 이번 이시바 내달 방한 계획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 방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1월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해 왔지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조간신문 1면에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사를 크게 싣고 홈페이지 상단에 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배치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해 어려운 국정 운영을 강요받았다”며 “사태 타개를 노리고 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보도한 일본 신문들 4일 발행된 일본 주요 조간신문 1면에 ‘한국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한 기사들이 실려 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며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선포라는 강경책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모두 비판을 강화해 구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교도는 별도 분석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면서 “강권정치 시대로 퇴보한 듯한 강경책에 혼란이 확산했다”고 해설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도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러한 수법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고 더 큰 혼란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의 야당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태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및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개선 흐름이 이어졌던 양국 관계에 작

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 “국교정상화 60년에 맞춰 관련 행사도 검토가 이뤄진 가운데 계엄령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듯하다”고 보도했다. NHK에는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일본인 가족은 “직전까지 고민했지만, 뉴스 등을 보고 불안해져서 결국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앤디김 “계엄선포 ‘국민 통치 기반’ 약화시켜”

### 한국계 첫 美연방 상원의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존중받아야”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사건)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 기반을 약화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 받아야 한다”며 이치럼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

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연합뉴스



## 美한인들, 고국에 ‘비상 계엄령 상황’ 긴급 연락

미국 한인 사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고국에서 타전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이날 ‘미국의 한인들은 서울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현지 한인들의 반응을 이같이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 거주하는 김종준(56)씨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치가 왜 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조금 부끄럽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의 “많은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민자 공동체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을 읽으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날 미국 전역의 한인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국 상황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고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b>시내 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국 222-8171</li> <li>· 산수지국 224-4188</li> <li>· 학운지국 673-6836</li> <li>· 화정지국 372-9140</li> <li>· 금호지국 376-7153</li> <li>· 풍암지국 603-0311</li> <li>· 노대지국 674-3581</li> </ul>	<p><b>지방 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지사 061)270-8689</li> <li>· 동목포지사 061)278-0740</li> <li>· 남목포지사 061)245-3797</li> <li>· 신안지사 061)980-8300</li> <li>· 순천지사 061)746-1600</li> <li>· 여수지사 061)651-64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지국 453-2554</li> <li>· 광천지국 374-2120</li> <li>· 진월지국 676-2726</li> <li>· 봉선지국 673-6836</li> <li>· 백운지국 673-0123</li> <li>· 두암지국 266-1920</li> <li>· 농성지국 362-41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지국 222-8171</li> <li>· 운암지국 529-3548</li> <li>· 용봉지국 261-1503</li> <li>· 신가지국 954-1420</li> <li>· 양산지국 574-3745</li> <li>· 하남지국 951-9954</li> <li>· 운남지국 952-168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치지국 261-9461</li> <li>· 문흥지국 261-9462</li> <li>· 일곡지국 573-3200</li> <li>· 첨단지국 971-7374</li> <li>· 치명지국 371-9584</li> <li>· 수원지국 955-0451</li> <li>· 광신지사 944-0993</li> </ul>
---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